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사람들

글 조성진 작가 / 사진 송은지



2015년 아산상 수상자들과 재단 이사진, 내빈이 기념촬영을 했다. 뒷줄 왼쪽부터 김종인 · 김유후 이사, 최종원 감사, 한승주 · 이병규 이사,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장명수 · 김명자 · 이흥구 이사, 이혜숙 씨(유덕중 교수 부인), 정몽준 이사장, 이상주 · 이춘림 이사, 박희원 갈바리의원 의료원장,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 이석연 아산나눔재단 이사, 이봉주 이사,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 최재성 이사.

제27회 아산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25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 단지에 자리한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이흥구 이사 등 재단 임원, 역대 아산상 수상자와 박정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 등 내빈, 수상자와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아산상은 1989년에 처음 개최한 '사회복지시설직원 위로의밤' 행사에서 공로상을 시상하면서 비롯되었다. 아산상은 지금까지 27회를 맞는 동안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효행을 실천한 분들을 발굴 · 포상하며 우리 사회에 봉사와 나눔 문

화를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5년에는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아산상의 제정 취지와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시상부문을 통합, 총 7개 부문으로 조정하는 한편 상금을 인상했다. 아산상과 의료봉사상 · 사회봉사상 · 특별상 · 복지실천상 등 주요 시상 부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원봉사상과 청년봉사상 · 재능나눔상은 자원봉사상으로, 다문화가정상은 효행 · 가족상에 통합시켰다. 상금은 아산상 3억원, 의료 · 사회 · 특별상은 각각 1억 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나머지 부문은 각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려서 모두 12명(단체)에게 총 8억4천만 원을 지급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이흥구 아산재단 이사가 인사말과 축사를 하고 있다. 정몽준 이사장의 인사말을 들으며 참석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왼쪽부터)

제27회 아산상은 지난 7월 말까지 추천서를 접수해 8월 초부터 9월 초순까지 한 달간 요건심사와 서류심사·현지실태조사를 벌인 데 이어 9월 중순과 10월 초에 각각 심사위원회(위원장 오연천)와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흥구)를 개최해 최종 수상자를 확정했다.

용기와 희망 전하는 수상자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아산상 심사위원이기도 한 이봉주 이사의 심사보고에 이어 각 부문 수상자(28p 상자기사 참조)에 대한 시상식과 인사말이 차례로 진행됐다.

정몽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요즘 사회가 어려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한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는 쉬웠던 때가 없었다. 아버님은 일제강점기에 가난한 산골에서 태어나 서울에 와서 힘든 생활을 하던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고, 사업에 성공해서는 복지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던 1977년에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아산재단을 설립하셨다. 오늘은 아버님께서 태어나신 지 100년이 되는 날인데, 이런 뜻 깊은 날에 훌륭한 분들에게 아산상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고 말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수상자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축하인사를 전한 뒤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온 수상자 여러분 덕택에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고마움을 전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산재단의 설립이념에 동참해 주시는 수상자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아산상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호스피스 병원으로서 아산상을 수상한 갈바리의원(관련기사 22~25p)의 오진복(60) 원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은 임종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임종을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92년부터 우간다에서 현지 의료인 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의료봉사상을 수상한 유덕중(관련기사 30~33p) 교수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 정부과건 의사로서 우간다 마케레레의대와 몰라고 병원에서 활동해왔다. 유 교수는 “2016년 3월부터는 에티오피아에서 KOICA 글로벌 닥터로 활동하게 됐다”면서 “남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채우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회봉사상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상담기관인 한국생명의전화에 돌아갔다. 1976년부터 139만 건의 전화상담을 통해 고귀한 생명을 구해온 생명의전화는 우리 사회의 ‘정신적 119’로서 자살을 생각하는 절박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명의전화 김종훈 이사장은 수상 소감을 밝힌 뒤 정몽준 이사장에게 “운영이 어려운 생명의전화 같은 곳에는 3년에 한 번 씩 아산상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가볍게 부탁해 시상식장을 부드럽게 만들기도 했다.

장명수 이사과 수상자의 특별한 인연

특별상은 국내 유일의 지상파 라디오 복지전문 채널인 KBS 3 라디오가 받았다. 이수행 KBS 라디오 1국장은 “1995년 개국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3라디오는 450만 장애인과 100만 다문화가정, 그리고 소년소녀가장과 노인 등 소외계층과 함께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다”면서 “이번 수상은 매일 21시간 동안 17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제작진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아산재단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효행·가족상 수상자로는 25년간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두 아들을 학교에 진학시킨 조정순(49) 씨와 1995년 국제결혼한 뒤 1급 지체장애인 남편과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산토스 재클린



1. 정몽준 이사장과 아산상을 수상한 갈바리의원 오진복 원장.
2. 의료봉사상 수상자 유덕중 교수.
3. 사회봉사상을 수상한 한국생명 의전화 김종훈 이사장.
4. 특별상을 수상한 KBS 3라디오 이수행 국장.



5. 효행·가족상을 수상한 조정순, 멘도자 씨(오른쪽부터).
6. 자원봉사상 수상자 임성택, 정응선, 강남국 봉사자(오른쪽부터).
7. 복지실천상 수상자 오영미 · 손태수 부부, 김복려 부장, 권명오 실장(오른쪽부터).

멘도자(47) 씨 등 2명이 선정됐다.

복지실천상은 29년 동안 여성 노숙인과 지적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해온 권명오(53) 서울시립영보자애원 행정실장 등 3명(부부 한 쌍 포함)이, 자원봉사상은 몸이 불편하면서도 복지관 등에서 영어를 가르쳐온 강남국(58) 봉사자 등 3명이 받았다. 특히 강남국 봉사자는 자원봉사상을 시상한 장명수 아산재단 이사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눈길을 모았다. 세 살 때 소아마비에 걸린 강 씨는 27세일 때 장애인이 일할 곳이 없는 현실을 원망하며 당시 한국일보 기자이던 장명수 이사에게 편지를 보냈

데, 장 이사는 1984년 12월 13일자 한국일보 ‘여기자 칼럼’에 ‘장애자의 일할 권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어 장애인고용촉진법의 필요성을 일깨웠다는 것이다. “상을 받고 나서야 그때 기사를 쓴 기자와 장명수 이사님이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31년째 이어지는 특별한 인연에 놀라워했다.

이흥구 이사는 축하에서 “아산 선생은 항상 인간을 중요시하셨다. 아산이 제정한 아산상은 우리 이웃은 물론 지구촌의 아름답고 보람 있는 인간관계를 위해 공헌할 것”이라고 아산상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수상자들에게 축하인사를 건넸다. 🌟

제27회 아산상 수상자 • 아산상 갈바리의원 • 의료봉사상 유덕중 교수 • 사회봉사상 한국생명의전화 • 특별상 KBS 3라디오 • 복지실천상 권명오(서울시립영보자애원 실장) 김복려(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장) 손태수 · 오영미 부부(충북혜능보육원 사무국장 · 복지지원팀장) • 자원봉사상 화요일이발봉사회(회장 정응선) 강남국(장애인, 영어교육 봉사자) 임성택(향기네무료급식소 대표) • 효행·가족상 산토스 재클린 멘도자(필리핀 결혼이민자) 조정순(경남 창원)